조선시대 서원은 중종에서 명종까지 초창기, 선조에서 현종 까겨r발전기，숙종에서 영조초기까지 남설기(濫設期), 서원이 •정리되기 시작하는 영조17년 이후의 쇠퇴기 등4단계로 나눌 수 있다.

초창기에는 선현을 봉사하고 유생들의 학문연구와 덕성함양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였으며 그 건립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향촌 자치제를 지향하였다. 배향(配享)기준도 학문이 깊고 사문(斯文)에 공이 있는 자로 공론에 합당한 분이어야 가능하였다. 따라서 국가에서도 사액과 함께 전답, 노비, 서책 등을 내려 장려하였다.

# 이후 집권세력에 의해 자파세력 확대에 서원이 이용되면서 그 설립이나 사액과정에 정치권력이 작용하고, 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난 후 이에 희생된 충신과 의사의 봉사(奉祀)

가 성행되면서 점차 남설이 사회문제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서원의 남설은 현종말부터 시작하여 숙종대에 오면서 폭발적 으로 증가하는데，이는 이시기가 남•서인간에 정쟁(政爭)의 격화가 크게 작용하였지만 여기에 서원을 통한 자기존립(自己 存立)을 모색하였던 지방사림들의 이해관계가 결부되면서 더욱 ,확대되었다• 이 때문에 서원은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고, 사현 위주로 전환되면서 가묘적(家廟的) 성격을 가지는 사우(祠宇) • 와 구별이 모호해졌으며 영조초에는 서원• 사우를 합하면 약 700개소나 되었다.

이러한 서원의 폭발적 남설은 정치 • 사회적 폐단을 심화시켰 으며 따라서 영조 이후 왕권강화책의 일환으로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었고 대원군 집정시인 18기년에는 마침내 학문과 충절이 뛰어난 인물을 기준하여 1인 1원의 원칙에 따라 ! 27개의 사액서원(賜額書院)과 20개의 사액사우(賜額祠宇)만 L•남기고 모두 훼철(毀撤) 되었다.